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 초청 오찬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하는 사람 있음) 무엇보다도 제가 참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역량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노력에는 다 축적이 있게 마련이고, 또 모든 일에는 남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 남은 것을 잘 챙겨서 또 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때 다시 자산으로 쓰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자위하고 싶습니다.

성공 못했으나 모두가 보여준 노력과 열성에 서로가 감동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여준 노력과 열성 있는 태도가 서로를 감동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과테말라에 가서 한 분 한 분 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육계 인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 인사들, 이름이 드러나 있는 분들 말고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경제인들, 우리가 성공해도 별 생색도 안날만한 사

람들까지도 모두 그렇게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와서 열심히 함께 도와주셨고, 정부의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의 노력들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 되면 뒷말이 많기 마련입니다. 네 탓하고, 내 탓하고, 심하면 조상 탓까지 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번 일 뒤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공을 다투려고 한 일도 없고, 일을 남에게 밀어붙인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되면 뒷말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

저는 성공하지 못한 순간, 제 스스로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의 정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 큰 비난을 듣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이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국민들의 안목이 이제 이런 것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수준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언제나 성공하고 이긴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또 낙오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니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경우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승리한 사람의 노력과 영광을 칭송해야 하지만, 아울러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잘했다고 청와대에 떨어진 사람들 초청해 놓고 밥 먹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면 차라리 이런 자리 없어도 괜찮죠, 성공 못했으므로 숨겨진, 묻힌 여러분의 노고를 이렇게 한번 위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점심한번 같이 먹고 얘기 잠시 하는 것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어떻든 저는 이 자리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로 그렇게 대신 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 외교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새로운 준비 필요

이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스포츠 외교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보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게 국민적 차원에서 격려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혹시 좀 더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그냥 서로 위로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 더 성공하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자리, 멀리 10, 20년 내다보는 그런 좋은 계획을 마련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더욱 더 유익할 것입니다. 보람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심 맛있다 생각하고 많이 드시고 오늘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발언 요지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 문제,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 그리고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문제 등이다.

우선,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편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8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문제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기 바란다. 그 결과를 가지고 관계된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치실패 외교역량 열세 때문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문제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계 등과 협의해서 멀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번에 우리가 외교역량의 열세 때문에 유치에 실패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외교역량에 있어 큰 주목을 받는 나라이며,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실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제일 협력을 원하는 나라이다.

이번 유치활동 과정에서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특히 경제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음양으로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준 많은 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